

三姓神話의 形成과 文獻定着過程

張 壽 根*

目 次

- I. 머리말
- II. 三姓神話의 形成과 傳承
- III. 文獻上의 定着過程
- IV. 名稱問題
- V. 맺는말

I. 머리말

삼성신화에 대해서는 필자로서는 세번의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기에¹⁾ 더 언급할 것이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삼성신화」라는 용어의 불가론이 나오고, 이번에는 탐라문화연구소의 요청을 어기지 못하여 하지 못해서 다시 붓을 들기로 하였다.

II. 三姓神話의 形成과 傳承

삼성신화의 형성에 대해서는 요약하자면 제주도에 지금도 흔히 전승되는 서

* 前 京畿大學校 教授

- 1) 張壽根, 三姓神話 解釋의 한 試圖, 국어국문학 22호, 국어국문학회, 1960.
——, 濟州島 堂神話의 構造와 意味, 濟州島研究 3輯, 濟州島研究會, 1986.
——, 口傳神話의 文獻神話化 過程—濟州島 堂神本풀이의 三姓始祖神話化를 中心으로—, 李杜鉉教授 停年紀念論文集, 1989.

사무가, 특히 당신본풀이의 기본 모티브들이 삼성신화의 모티브와 공통된다는 점에서 누차 논급되어 왔다. 그 공통되는 모티브란 예컨대 ① 男神의 湧出 ② 女神의 入島 ③ 座定經緯譚 ④ 男女神의 婚姻 등등으로서, 이것이 그대로 삼성신화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지는 필자의 위 3편의 논문에서도, 현용준교수의 삼성신화에 대한 두 편의 주논문과²⁾ 그 외에도 누차 언급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논지는 같았고, 학계 전반적으로도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청동기시대부터 청동기에 이미 多鈕細文鏡, 細形銅劍, 八珠鈴 등 오늘날 본토의 무구인 명두, 신칼, 방울들의 祖型을 정교하게 보여주면서 강한 무속성을 나타냈고, 단군신화에서부터 단군이 巫王이라는 논급들이 있어 왔다. 삼성신화도 근래 제주도에서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는 바와 같이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그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대로 씨족 내지 부족사회를 형성하면서 무속성을 띄고 형성되어 왔으리라는 것을 상정할 수가 있겠다.

그 후 이 신화는 유구히 전승되다가 고려말 조선초에는 한편으로 기록 정착이 되면서 그 당시의 서사무가적인 전승기반을 보여준다. 그렇게 한편으로 기록되는 또 한편으로 무가로서도 계속 조선시대의 적어도 中宗代 무렵까지는 구전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것은 제주목사 李命俊이 正祖10년(1786)에 임금께 올린 啓文 속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前略)…삼성시조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당을 세우고 향사한 일이 없었으며, 다만 광양당이 있어 무당들이 빌고 굿하는 장소이었는데, 가정 병술년(中宗31년, 1526)에 목사 李壽童이 비로소 모흥혈 옆에 단을 쌓고 三乙那의 자손으로 하여금 매년 11월에 제향을 올리게 하였습니다.」³⁾

이 기록으로 보아서 적어도 이수동 목사가 축담했던 中宗31년(1526)까지는 삼성시조는 광양당에서 무속제의로 모셔졌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2) 玄容駿, 堂宮의 儒式化와 三姓神話, 제주도 14호, 제주도, 1964.
——, 三姓神話研究, 耽羅文化 2號,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83.

3) 耽羅星主遺事, 高氏宗門會總本部, 1979, p. 632.
…(前略)…初無建祠 致祭之事 只有廣壤堂 而爲巫覡 禱賽之場矣 嘉靖丙戌 牧使李壽童 始爲築坊於穴傍 使乙那子孫 每於仲冬 行祭是白如可.

三姓神話의 形成과 文獻定着過程

는 현교수도 “삼을나신도 광양당신과 같은 당신일 것이며, 한라산계, 또는 松堂系의 당신이라 추단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삼성사도 본래 당이며 그 신화도 당신화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고 한 바가 있었다.⁴⁾

결국 이때까지 삼성시조를 모셨던 광양당굿도 본래는 제주도의 본향당굿의 하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본향당이란 명칭은 한국 洞祭堂 명칭의 한 지방형이다. 동제당은 지방에 따라서 산신당, 또는 산제당(京畿, 忠淸), 부군당(서울), 서낭당(江原), 당산(全羅, 慶尙), 본향당(濟州)들로 명칭에 넘나들이 있으나 근원은 다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성격은 地緣的 和合性을 강하게 띄는 것이고 그것은 동제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제에서 모시는 신은 여신인 경우가 많기는 하나, 물론 남신도 적지 않고, 부부신을 모시는 경우도 적지않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고, 여신이 많아서 당에 가는 것을 흔히 할망당에 간다고도 한다. 그런데 필자의 관점으로는 제주도의 삼성시조와 같이 한 마을 동제당에서 다른 세 성씨의 시조를 같이 모시는 경우를 꼭 하나,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大浦里에서 발견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는 골매이 하씨할배, 최씨할배, 양씨할배의 3신위를 모신다. 그중 하씨조상은 임진왜란 또는 世祖 찬위 때에 이곳에 피난와서 처음으로 이 마을을 이룩하고 낙향 1대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씨측에서는 최씨할배가 하씨할배보다 더 먼저 여기 와서 정착했으며 처음 이 마을을 이룩했다고 우겨서 때로는 河, 崔, 梁의 순위가 최, 하, 양으로 고집되기도 했다.⁵⁾

이것은 한국 본토의 수천건의 동제 중에서 하나만이 발견된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더 꼽는다면 그것이 곧 三姓祠의 유교식 제사로 전환되기 이전의 광양당굿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들은 다 그만큼 희귀한 사례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 셈이다. 그러나 그것도 다 본래는 지연적 화합정신을 기본으로 한 동제의 한 갈래들이었다.

4) 玄容駿, 堂굿의 儒式化와 三姓神話, 제주도 14호, 제주도, 1964, p. 144.

5) 張壽根, 韓國의 鄉土信仰, 乙酉文庫, 1975, pp. 37-38.

Ⅲ. 文獻上의 定着過程

크게는 우주, 국가, 작계는 한 집안에 이르기까지 그 근원적인 뿌리에 대한 지적 욕구는 동서고금에 공통된 것으로 여겨진다. 삼성신화도 그 성격이 3시 조신을 주인공으로 한 건국신화라는 것은 그 기록들에 시조신의 내력과 이름들, 그리고 「將建國」이라든가 「國號毛羅」들로 마무리되는 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삼성신화의 초기 기록들은 거의 족보에 실린 것이 대부분인 듯하다.

그것은 삼성신화의 기록 중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오랜 星主高氏家傳에서부터 「족보에 이르기를」(譜云)하고 어떤 족보의 내용을 길게 인용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점은 다시 상론하기로 하고 여기서 한국 족보의 초기 상황을 참고삼아 알아 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족보는 동족 결합의 표현으로서 그 필사본은 고려시대부터 귀족층에서 작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목판인쇄의 첫 간행본은 世宗5년(1423)의 文化柳氏永樂譜로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최고본은 1476년에 간행된 安東權氏世譜로 확인되었다. 족보의 체제는 ① 서문과 발문 ② 記 또는 誌로서 이것은 시조의 史傳, 시조전설, 특성 사적, 지명 연혁 등인데 본고에서는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된다. 그리고 ③ 시조의 분묘도 ④ 편수자의 기명 ⑤ 범례 ⑥ 계보표로서 이것이 족보의 대부분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다.⁶⁾

다시 삼성신화와 그 초기 기록들의 족보 관계를 살필 때에 일단 문제되는 기록은 星主高氏家傳, 高麗史, 瀛州誌의 세 기록이 될 듯하다. 그러나 영주지는 이본이 많고 저자와 연대가 미상이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앞의 두 기록이 되겠다. 둘 중에서는 성주고씨가전이 먼저이다. 여기에는 끝에 「永樂十四年 大堤學 鄭以吾 撰」이란 기록이 있어서 그것이 太宗16년(1416)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한 대로 「족보에 이르기를」(…譜云…)

6) 崔在錫, 族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하고 분명하게 어떤 족보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 필요한 부분들만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세 사람이 한꺼번에 솟아 났는데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라 한
다. 그런데 고을나는 곧 고씨의 시조다. 모두 고기잡이와 사냥으로 먹고 지
냈다.

족보에 이르기를 「일본국의 임금의 딸 일곱을 낳았는데, 딸 넷은 단적국
으로 보냈다. 단적은 곧 이른바 적적의 종족이다. 그 딸 셋에게 명령하기를
“서남쪽 바다에 산이 있어서 그 산이 잉태하여 신인 3형제를 낳았는데 국가
를 세우려 하나 배필이 없으니 너희들은 가서 그를 섬기라. 후세에 자손이
반드시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다.”하고 그들을 배에다 태우고 5곡의 씨앗과
마소까지 갖추고 또한 신인으로 하여금 보호하여 그들을 보냈다. 탐라의 동
쪽 바닷가에 신인의 아들 세 사람이 사냥하러 나왔다가, 그들과 만났는데,
그를 보호하고 온 사자는 곧 붉은 가죽머를 띠고 자주빛 장삼을 입었는데
공중으로 날아서 가 버렸다. 세 사람은 나누어서 그들에게 장가를 들어가지
고 모흥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수년을 지나는 동안 살림이 모두 이
루어졌고 그 후손이 차츰 커졌다.

고을나의 15세손인 고후에 이르러 그의 아우인 고허과 장차 신라에 조회
하러 하는데 객성이 먼저 나타났다. 관대에서 아뢰기를 “다른 나라에서 신
인이 조회하러 올 징조입니다.” 하였다. 얼마 후에 고후의 형제가 바다를
건너서 처음으로 탐진에 닿아서 드디어 신라에 이르렀다. 임금은 그들을 반

7) 鄭以吾, 星主高氏家傳(東文選 43卷 130面 所載)

…(前略)…三者同時湧出 曰高乙那 良乙那 夫乙那 而高乙那 卽高氏奧祖也
俱漁獵以爲食 譜云 日本國主 生女七人 遣四女于丹狄國 丹狄卽所謂赤狄之種
也 命其女三日 而南海有山 孕秀生神人三昆季 將建國無媿偶 若輩可往事之 後
世子孫 必繁衍盛多矣 乘之以全木船 兼備五穀牛馬之種 且使神人衛而送之 至
耽羅東海之濱 神子三人 出獵遇之 其衛護神人乃紅鞞紫衫者也 陵空而去 三子
分娶之 卜毛興窟近地以居 數年間產業俱就 其後漸大 至高乙那十五世孫 高厚
與弟高清 將朝見新羅 有客星先現 觀臺報云 異邦神人來朝之徵也 旣而高厚兄
弟渡海 初泊耽津 遂至新羅 王喜待之 以客星先現之故 賜高厚爵星主 且令高清
出王之胯下 愛如己子 爲王子 賜邑號曰耽羅 蓋自耽津至新羅故也. 羅史載之甚
詳…(中略)…得宗謂以吾曰 吾宗肇基毛興之穴 自新羅式至于今世襲星主…(中
略)…然世次 譜牒不全 姑以大概爲請…(下略)…

永樂十四年 丙申秋七月 日 資憲大夫藝文館大堤學知春秋館 鄭以吾 撰
이상 번역문, 원문은 모두 위 耽羅星主遺事(pp. 329-334)에서 引用.

가이 대접하고 객성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고후에게 성주라는 작위를 주고 또한 고청은 임금의 무릎 가까이 있게 하고 그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여 왕자를 삼고 고을의 칭호를 탐라라 하였다. 대개 탐진에서 신라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였다. 신라의 역사에 이것이 상세이 기록되었다.

…(중략)… 득중(高得宗)이 이오(鄭以吾)에게 이르기를 “우리 집안이 모흥혈에서 기초를 세운 이후로 신라로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성주의 작위를 세습하였고 …(중략)… 그러나 세대의 차서라든가 족보의 기록이 완전하지 못하여 우선 대략을 적어서 부탁한다.” 하였다. …(후략)…

太宗16년(1416년) 丙申 7月 자헌대부 예문관 대제학 지춘추관 정이오 찬.

이상으로 보아서 이 성주고씨가전이 1416년(太宗16)에 고득중의 부탁으로 정이오가 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정이오는 그 앞부분에서 고씨 족보를 인용해서 삼성신화를 적었고, 또 고득중은 정이오에게 부탁할 때에 완전하지 못한 고씨 족보이지만 그 대략을 자료로 준 것도 알 수가 있다. 여기 인용된 족보도, 자료로 건네준 족보자료도 아직은 필사본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보거니와, 이러한 필사본들은 다 후에 인쇄본 족보 간행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을 것이다.

다음에는 고려사 지리지의 삼성신화를 보기로 한다.⁸⁾

탐라현은 전라도 남쪽 바다에 있다. 그 고기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 한라산의 북쪽 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혈이라 하니 이것이 그곳이다. 만이를 양을나라 하고 다음을 고을나라 하고 셋째를 부을나라 했다. 세 신인은 황량한 들판에서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주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돌함이 있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8) 高麗史 地理誌 濟州. 耽羅縣 在全羅道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嶽出(今嶺山北麓有血口 毛與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至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人 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 侍三女以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 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曰第一都 高乙那所居 曰第二都 夫乙那所居 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下略)

三姓神話의 形成과 文獻定着過程

돌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망아지와 5곡의 씨가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신자 3인이 탄강하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고 하며 신에게 명하기를 세 따님을 모시도록 하므로 왔으니 마땅히 배필을 삼아 대업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니 양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1도라 하고, 고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2도라 했고, 부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3도라 했다. 비로소 5곡의 씨를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살림이 풍부해지더라.」

이 신화는 「其古記云」하고 탐라현에 있던 어떤 고기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은 위에 적은 인용의 전부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3신인의 순서가 양, 고, 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양씨측의 기록 중에서 위에 소개했던 족보의 ② 「記 또는 誌」의 시조의 史傳, 시조전설, 특성 사적, 지명 연혁 등의 부분이 인용되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해 왔다.

그 가능성은 더구나 梁誠之(1414-1482, 太宗14년-成宗13년)가 고려사(1454년, 端宗2년 간행) 수사관으로 참여하였기에⁹⁾ 자연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며는 그것은 족보의 첫 인쇄본이 나왔다는 世宗5년(1423) 무렵의 일이니 그 족보도 역시 필사본이었을지 또는 인쇄본이었을지 궁금해진다. 다음에 영주지도 거론될 만한 탐라역사서인데 이것은 이본이 많은 듯하고, 위의 高得宗이 1450년(世宗32)에 기록한 것도 있다고 한다.¹⁰⁾ 그 첫머리 신화 기록은 대체로 고씨측 족보와의 관련성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 온 대로 삼성신화는 상대의 무속적인 형성 이래로 유구한 전승기간을 가져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그 초기의 문헌상 정착에는 족보와의 관련성이 매우 긴밀했다. 그것은 屋主高氏家傳(1416년)이나 高麗史(1454년 간행)의 삼성신화가 족보의 첫 간행본(1423년)과 전후해서 나온 시대성이 작용한 탓이 클 것이다.

9) 國史大事典(李弘植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의거.

10) 玄容駿, 三姓神話研究,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p. 222.

이것을 잠간 고주몽신화의 형성 전승과 비교해 보면, 고주몽신화도 부여 건국(B.C. 3C), 고구려 건국(B.C. 37년) 이래로 무속적인 형성을 해왔었는데 그것은 1세기에 중국책 論衡에 이미 기록 정착이 된다. 그 후 그것은 魏略(3C), 後漢書(5C), 魏書(6C), 梁書(7C) 등등 10여 개의 문헌에 전국시대의 중국인들이 상대국에 대한 관심으로 기록을 한다. 고구려로서도 물론 留記(4C)나 新集(600년)에 그 건국시조신화를 기록했겠으나 현존하는 것은 三國史記(1145년), 遺事(1280년대), 東明王篇(1193년), 帝王韻記(1291년) 등의 기록이다.

이 12, 3세기는 고려가 거란(遼), 여진(金), 특히 몽고(元)의 야만적인 침략을 당하던 전고에 없는 국난기였다. 단군이 一然을 거쳐서 李承休에 이르러 민족시조로서의 성격이 명백히 된 것도, 李奎報가 동명왕편을 집대성하는 것도 다 국민의 결속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문학의 시대성이 큰 탓이다.¹¹⁾ 특히 신화는 그 형성기나 전승시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과 정착시키는 시대성도 중요하다.

주몽신화도 1세기부터 한편으로 기록정착이 되면서도, 7세기 고구려말 遼東城의 朱蒙祠 무속제의는¹²⁾ 그 신화의 무속적 전승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삼성신화가 15세기초에는 기록되는 한편으로 16세기 조선시대 中宗代까지는 광양당굿으로 무가로서의 전승의 가능성을 보이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전승에서 3시조신을 모시던 광양당굿같은 본향당굿은 본래 地緣的 和合性을 기본으로 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신화는 기록 정착에서는 姓氏中心主義, 血緣中心主義로 사회적 기능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역기능을 하는 측면도 노정시키기에 이르고 있다.

IV. 名稱問題

삼성신화의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근래 전경수교수의 다음 발표들에서 거듭

-
- 11) 李佑成, 高麗中期의 民族敘事詩, 韓國의 歷史認識(上), 창작과비평사, 1977, pp. 187-188.
 - 12) 新唐書 高麗條, 「城有朱蒙祠 祠有鎖甲鋸矛 妄言前燕世天所降 方圍急 飾美女以婦 神巫言 朱蒙悅 城必完」

異見이 제시되어 왔다.

- ①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輯, 濟州島研究會, 1987.
- ② 濟州研究와 用語의 脫植民化, 濟州島의 陸上 및 海洋資源, 濟州島研究會 7次 全國大會 論文集, 1991.
- ③ 乙那神話와 耽羅國의 散考, 濟州島研究 9輯, 濟州島研究會, 1992.

필자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위 3편인데, 여기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할 시간과 지면의 여유가 없기에 그 주요 논점들만을 같이 논의해 나가기로 하겠다. 전 교수는 위 글에서 “三姓神話라는 용어의 출현은 植民主義와 西歐學問이 조합적으로 창조한 배경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하고, 이 신화의 기본성격은 耽羅部族神話이고 이름은 乙那神話가 좋겠다고 제안하고¹³⁾ 사용도 하였다.

먼저 「耽羅部族神話」라는 용어에는 탐라의 개국신화 외에도 예컨대 천지개벽신화나 日月星辰의 신화들도 포함될 수 있기에 「耽羅開國神話」라고 기본성격은 분명하게 규정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는 古朝鮮建國神話를 檀君神話로, 高句麗建國神話를 高朱蒙(東明王)神話로, 흔히 그 시조명으로 학계에서 통칭하듯이 乙那神話로 하자는 데 대해서 일단은 찬동한다. 다만 을나는 3인이었으니 三乙那神話라고 하면 전체 한국 학계에 내놓아도 언뜻 납득이 더 빨라서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을나」라는 낱말의 뜻은 일단 여기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을나」들에 대해서는 먼저 을니(良乙那) 곶니(高乙那) 불니(夫乙那)의 한자표기로, 그것은 을(神聖), 곶(光明), 불(統禦)의 뜻에 인격을 표시하는 <네>가 붙은 것이라는 李殷相씨의 설이 있다. 그리고 현용준교수는 高乙那는 높을너로 높은이, 良乙那는 어질너로 어진이, 夫乙那는 불너 내지는 불너로 밝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¹⁴⁾ 또 전경수교수는 耽羅紀年(1918년)의 「乙那… 鄉言王」을

13) 全京秀, 乙那神話와 耽羅國의 散考, 濟州島研究 9輯, 濟州島研究會, 1992. p. 24.

14) 玄容駿, 三姓神話研究,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p. 216.

“그 풀이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에 탐라 고어의 문화사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비약적 해석이라고 생각된다.”고 일단 전제는 하면서¹⁵⁾ 「乙那神話」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이 「을나」가 「얼라」, 「알라」, 「얼래」들로 남부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小兒」의 방언 내지는 고어를 그대로 한자표기한 것으로 본 바가 있었다.¹⁶⁾ 그 까닭은 三國遺事에 金闕智를 「闕智卽鄉言 小兒之稱也」라 하고 「因金櫃而出 乃姓金氏」라고 적힌 바와 같이 이들은 같이 童子神으로 출현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동자신의 출현 관념은 金首露王도 昔脫解王도 같다. 遺事의 「新羅始祖 赫居世王」조에도 다음과 같이 보인다. 즉 「位號曰居瑟邯 或作居西干 初開口之時 自稱云 闕智居西干一起 因其言稱之 自後 爲王者之尊稱」라 했고, 이어서 「鄉人以瓠爲朴 故因姓朴」이라고 성씨의 연원도 설명하고 있다.

현교수는 “高, 良, 夫는 본래 姓일 수 없고, 이것 자체도 이름의 한자 차차 표기라 본다. 선사시대에는 한자의 성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위의 글에서 적고 있다. 그러나 위 신라 시조들 때야말로 분명히 한자 성씨는 없던 때인데 성씨가 붙고 있으며, 성주고씨가전이나 고려사의 삼성신화 기록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분명하게 高, 良, 夫의 성씨를 적어 놓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필자는 乙那도 闕智와 같이 당시 小兒之稱의 표기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필자도 「嶺南地方의 民間信仰과 金闕智神話」(文化財 3號, 1967)라는 이름의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래서 「乙那神話」는 「어린애신화」라는 뜻이라도 이 신화의 명칭으로서 좋기는 하나 高·良·夫 三乙那神話이니 줄여서 「三乙那神話」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바이다. 다음에 전교수는 “「三姓神話는 제주도의 三姓氏族의 始祖神話인 동시에 開國神話다.」(玄容駿1983: 45)라는 단정적인 진술은 이 신화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입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¹⁷⁾

15) 全京秀,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輯, 1987, p. 20.

16) 張壽根, 韓國의 神話, 成文閣, 1961, p. 85.

17) 全京秀, 위(1987년도) 논문, p. 23.

三姓神話의 形成과 文獻定着過程

또 이어서 “이 신화의 중심주제를 始祖神話라고 해석하는 견해(현용준, 1983)는 사회조직의 차원에서 볼 때, 신화의 성격을 血緣中心의 가족사회에로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⁸⁾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한 두 집안이나 시조의 신화로 보지 말고, 전체 국가나 부족의 신화로 보자는 것은 좋다. 그러나 건국신화들의 경우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시조신이고, 굳이 중심주제를 논한다면 그것은 시조신화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가령 고주몽신화와 더불어 시조 주몽은 종교적 신봉의 대상이 되며, 「朱蒙祠」도 「東明廟」도 생기며, 「我是天帝子 河伯孫」이라고 왕가의 혈통의 신성성도 강조되어야 했다. 건국신화는 기본적으로 시조의 혈통의 신성성이 강조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혈통이건 혈연이건 앞서서 먼저 건국신화는 시조의 건국 위업을 기리는 신화이니 시조신은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신화도 三姓祠를 가졌고, 기본적 성격은 같다.

다음에 「神話」라는 용어도 한국학계에서는 1960년대에 들면서 비로소 일반화된 점을 첨기하기로 한다. 이 방면의 전문학자인 孫晉泰先生도 「檀君傳說, 東明王傳說 등 상고시대의 建國傳說을 ……」했고,¹⁹⁾ 李秉岐先生은 “고문헌에 전하는 神話로는 檀君開國說話, 東明王誕生說話가 ……” 했다.²⁰⁾ 신화라는 용어가 후자에는 보이거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서구학문이 일본을 통해서 유입되던 1920년 무렵 이후의 현상인 듯한데, 아마도 조선시대까지도 神話라는 용어는 사용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나 일단 숙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그러다가 근래의 서구식으로 「說話의 분류는 神話(Myth), 傳說(Legend), 民譚(民間說話, Folktale, Märchen) 등으로 나누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고 분명한 개념규정과 분류, 명명을 시도하는 1960년대 초기의 상황이 나타난다.²¹⁾ 任東權교수가 說話를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한 「民俗文學論」을 발표한 것도 같은 무렵이다.²²⁾ 같은 시기에 필자도 神話라는 용어로 「三姓神話 解釋의

18) 全京秀, 위(1991년도)의 글, p. 213.

19) 孫晉泰, 朝鮮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p. 2. (序說部分)

20) 李秉岐·白鐵 共著,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57, p. 31.

21)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p. 132.

22) 任東權, 民俗文學論, 現代文學 1961. 3. 4月號. (韓國民俗學論叢에 수록)

한 試圖」라는 논문을 발표했다.²³⁾ 정확하게는 「濟州島 三姓始祖神話 해석의 한 시도」인데 어떻게 그 논문명칭을 간결화하느냐 하고 고민하다가 「濟州島」도 빼고, 「始祖」도 중요하지만 빼버렸던 기억이 난다.

그것은 이룰테면 조선시대부터도 많이 三姓祠, 三姓廟 등으로 사용되었던 三姓의 始祖의 神話이니, 줄일 때에는 자연스럽게 三姓神話라고 하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교수에 의하면 "탐라인들의 을나신화는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정책에 이용된 가족주의와 성씨중심사상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의미변화를 경험하였고, 2차적으로는 일제에 의해서 식민정책에 이용당했다고 생각된다. 탐라에 대한 조선의 식민주의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주의가 중첩적으로 가중되면서 을나신화의 중심개념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집안문제의 차원으로, 을나신화의 명칭은 「삼성신화」로 정착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²⁴⁾고 논의된다.

그래서 현교수는 삼성신화라는 용어의 처음 사용예를 추적해보니 아직껏은 필자의 위 60년도 논문이 처음 사례라고 한다. 그래서 필자는 줄지에 조선시대인도 아니고, 일제시대에는 아직 소년이었는데 두 시대의 식민주의를 중첩적으로 제주도에도 범한 장본인이 된 듯하니 어리둥절하고도 뭇은 기분이다.

그러나 학문은 먼저 대상을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고 직시하며, 교훈을 얻는다면 거기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성씨 중심의 기록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확실한 자료로는 족보에서부터, 여말 선초의 제주인들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었다. 족보는 특히 귀족층의 특권 세습의 관심에서 고려시대에 비롯되지만 특히 조선시대의 유학사상이 거기 큰 영향을 미쳐 온 것이었다.²⁵⁾

그러나 현대는 이미 조선시대는 아니다. 유교의 혈연중심사상적 측면은 더구나 이제 우리 스스로가 초극해야 할 시대이다. 삼성신화와 그 제의는 본래 그 근원이 지연적 화합성을 기반으로 했던 점은 위에서 거듭 논의된 바와 같았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직 있다면, 언제까지 그

23) 張壽根, 三姓神話 解釋의 한 試圖, 국어국문학22, 국어국문학회, 1960.

24) 全京秀, 위(1992년도)의 글, p. 266.

25)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 出版部(履刻版), 1969, p. 67.

것을 방치하지 말고 시정할 마음가짐을 다져보는 것도 오히려 중요한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

V. 맺는 말

삼성신화는 耽羅開國神話였고, 동시에 그 주인공인 三姓始祖의 神話였다. 그 명칭은 三乙那神話도 좋고 三姓始祖神話, 줄여서 三姓神話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 기본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朴赫居世神話, 金闕智神話, 昔脫解神話 등 신라의 시조신화들처럼 각기 별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불러야 하니 三姓(始祖)神話라도 좋고 三乙那神話라도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言語란 社會的 公約物이니 그 사회적 공약의 귀결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제주도의 민속과 특히 서사무가, 신화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져온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중 중요한 삼성신화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논의하는 일에 학문과 언론의 자유라는 면에서 다소간의 조심성 같은 것을 느껴온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른바 혈연중심 성씨중심사상으로 서열 문제가 법정문제로까지 뒀다는 소문도 들려오는 마당에, 학문적 관심으로 기록한 것도 어떻게 누가 될 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초극되어야 한다. 실제로 필자는 젊은 세대에게서 예컨대 “고씨면 글을 쓸 때에 부, 양, 고 순으로 쓰고, 이제 그것은 극복돼야 한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다. 그러한 사례가 이제는 장년층에게는 물론 노인층에게도 너그럽게 칭찬받는 날이 멀지않을 것을 믿고 싶다.

參 考 文 獻

- 新唐書, 三國遺事, 高麗史
耽羅星主遺事, 高氏宗門會總本部, 1979.
李弘植編, 國史大事典, 196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7권, 1988-1991.
- 孫晋泰, 朝鮮民族說話의 연구, 1947.
- 李秉岐·白鐵 共著, 國文學全史, 1957.
-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履刻版), 1969.
- 張德順, 國文學通論, 1960.
- 張壽根, 三姓神話 解釋의 한 試圖, 국어국문학 22호, 1960.
- , 韓國의 神話, 1961.
- , 韓國의 鄉土信仰, 1975.
- , 濟州島 堂神神話의 構造와 意味, 濟州島研究 3輯, 1986.
- , 口傳神話의 文獻神話化過程—濟州島 堂神神話의 三姓始祖神話化를 中心으로—, 李杜鉉教授停年紀念論文集, 1989.
- 玄容駿, 堂국의 儒式化와 三姓神話, 제주도 14호, 1964.
- , 三姓神話研究, 耽羅文化 2號, 1983.
- ,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1992.
- 任東權, 韓國民俗學論攷, 1971.
- 李佑成, 高麗中期의 民族敘事詩, 韓國의 歷史認識(上), 1977.
- 全京秀,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輯, 1987
- , 濟州研究와 用語의 脫植民化, 濟州島研究會 7次 全國大會論文集, 1991.
- , 乙那神話와 耽羅國의 散考, 濟州島研究 9輯, 1992.